‘대학 등록금 책정’ 학생도 목소리 낸다… 등심위 구성 개선

교육부, 관련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등심위 위원 구성 학칙으로 규정
대학-학생간 논의구조 균형 도모
학생 요구시 관련자료 열람도 가능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지난 1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등록금 재논의와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 논의 구조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뉴시스

대학 등록금 책정을 논의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의 위원 구성이 앞으로 학칙으로 정해진다. 그동안 등심위 위원 구성과 등록금 심위 과정에서 전문가 위원을 위촉하거나 대학이 제공하는 등록금 책정 근거 자료가 부실해 대학생들이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대학생 측에 힘을 실어주는 방안이 마련됐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내달 2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등심위는 대학이 매년 등록금을 책정할 때 학생, 교직원 등 대학구성원과 함께 논의하도록 한 기구다. 지나 2010년 ‘고등교육법’을 통해 모든 대학에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지난해에는 이 법을 개정해 재난 상황으로 인해 등록금을 감면할 경우 그 규모를 등심위에서 논의하고 전문가 위원을 선임할 때 대학과 학생이 협의하도록 했다. 이번 법 개정은 이 협의 근거를 마련해 등심위 기능을 확대하고 논의 구조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최우성 대학재정장학과장은 “등록금은 대학생의 학업뿐만 아니라 대학의 재정여건과 깊이 관련된 사항으로 대학별로 설치된 등심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 개선 방안은 그간 등심위 운영과 관련해 대학생이 제기한 여러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으며, 등심위에서 대학과 학생 간 의사소통이 균형 있게 이뤄지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개정된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주요 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등심위 위원 구성 시 대학과 학생의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구성단위별 위원 수와 위원 선임방법, 임기 등을 위원회에서 논의해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다수의 위원이 요구할 때는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일시나 장소,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고 5일 전까지는 회의 자료를 송부해야 한다. 위원들의 회의 참석률을 높이고 안건을 숙지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위원이 아니더라도 안건과 관련된 학생, 교직원, 전문가 등 안건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수 있다.

아울러, 위원이 안건심의와 관련해 대학 측에 제출을 요청하는 자료 중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등 정당한 사유로 제출하지 않은 자료라 하더라도 필요하다면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교육부는 내달 27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마친 뒤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 거쳐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후 대학, 학생, 관련 전문가와 함께 등심위 제도, 대학회계 구조, 예·결산 등 위원회 운영 및 안건 심의에 도움이 되는 안내 자료를 제작해 2022년 하반기에는 대학에 배포해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수능 문제·답안지 전국 86개 시험지구 배부

내일까지 순차적 배송
경찰 등 400여 명 투입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사흘 앞둔 15일 오전 세종시의 한 인쇄업체에서 관계자들이 전국으로 배부될 수능 문제지와 답안지를 차량에 옮겨 싣고 있다. /뉴시스

교육부는 15일부터 17일까지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문제지와 답안지를 전국 86개 시험 지구에 배부한다고 밝혔다.

수능 문제지와 답안지는 일자별 계획에 따라 각 시험 지구에 순차적으로 배송되며, 이를 위해 인수 책임자 등 관계자와 경찰 인력 등 총 400여명이 인원이 투입된다.

안전하고 원활하게 배송하기 위해 운송 차량에 대해 경찰 호송이 이뤄지며, 일반 운전자가 도로에서 수능 문제지 운송 차량을 만나면 경찰 지시와 유도에 적극 따르는 협조가 필요하다.

시험 지구로 배부된 문제지와 답안지는 엄격한 보안 관리하에 별도 보관 장소에 보관되며, 수능 당일인 18일 아침 해당 시험장으로 다시 배부된다. 올해 수능은 전국 약 1300여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시행되며, 50만9821명의 수험생이 응시 지원서를 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울산대 등 5개大, LINC+육성사업단 ‘맞손’

공유 협력 생태계 조성하기로

울산대학교 사회맞춤형산학협력선도대학 LINC+육성사업단은 지난 12일 경일대·전남대·중앙대·한남대 LINC+육성사업단과 LINC 3.0사업을 준비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동남권·대경권·호남권·수도권·충청권을 대표하는 각 대학이 제주 라마다호텔에서 지난 12일부터 이틀 동안 열린 ‘LINC 3.0사업 대비 초광역권 연계 워크숍’을 통해 대학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이뤄졌다.

협약을 통해 5개 대학은 공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공동 성과를 창출하는 공유협력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현진 기자

숭실대, 생산성본부와 경영역량 향상 MOU

교육사업 협력하고 연수사업 강화

숭실대학교가 경영 전문역량 향상을 위해 한국생산성본부와 맞손을 잡았다.

숭실대는 지난 12일 오후 4시 학내 베어드홀 4층 회의실에서 한국생산성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대학의 전문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에 협력하고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업무자원과 축적된 노하우를 활용해 컨설팅 및 교육 연수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체결됐다.

협약에 따라 향후 양 기관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분야 협력을 통한 경영혁신 ▲AI융합 분야 등 수요맞춤형 교육과정 고도화 ▲경영분야 교육을 통한 학생역량 강화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숭실대의 장범식 총장, 이원철 연구·산학부총장, 박종우 경영대학원 부원장, 노희천 회계세무학과 주임교수, 우윤석 대외협력실장과 한국생산성본부의 안완기 회장, 문중성 대학&글로벌사업추진단장, 정선학 경영교육센터장, 고태희 대학컨설팅센터 선임전문위원, 노재훈 경영교육센터 전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현진 기자

한국외대 GTEP 사업단

한국무역협회장상 수상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역특화 청년무역전문가 양성사업단(GTEP사업단)이 지난 달 ‘2021 대학(원)생 FTA 활용 홍보 콘텐츠 공모전’에서 한국무역협회장상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가 주관한 ‘2021 대학(원)생 FTA 활용 홍보 콘텐츠 공모전’은 FTA 활용에 대한 대학(원)생들의 관심을 높이고 보다 많은 기업에 FTA 활용 사업을 홍보할 수 있는 콘텐츠 발굴을 위해 개최됐다.

한국외대 GTEP사업단(박수빈, 우지연, 이윤지, 한혜주, 이상 성명 가나다 순)은 본 공모전에서 1380 FTA 상담콜센터 및 FTA 통합플랫폼 홍보 콘텐츠를 제작해 영상 부문 우수상(한국무역협회장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현진 기자

“정부, 플랫폼 대기업 대한 규제 줄여야”

김대종 세종대 교수, 논문서 주장
“中企와 상생·협력 대안 마련해야”

“정부와 국회는 카카오와 네이버 등 플랫폼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줄이고, 중소기업이 플랫폼기업과 상생·협력하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사진)가 최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한국중소기업학회에서 ‘플랫폼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방안 연구’ 논문을 발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번 추계학술대회는 ‘신기술혁명과 환경변화, 중소기업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김 교수는 “카카오, 네이버 등 플랫폼 대기업에 대한 정부와 국회 규제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중소기업이 플랫폼기업과 상생하고 협력하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한국은 스마트폰 보급률 95%, 통신 인프라, 그리고 전자정부에서 세계 1위”라며“정부는 중소기업이 온라인플랫폼 이용해 함께 성장하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통해 온라인쇼핑이 총 소매액 600조원의 60%까지 성장할 수 있다는 게 김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기업 99%, 근로자 88%는 모두 중소기업이라는 의미로 9988이라는 말이 있다”며 “국내 총생산 5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육성해 요소수 부족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광운대-숭실사이버대, 상호 교류 ‘맞손’

등록금 감면 혜택 등 협력

광운대학교는 숭실사이버대학교와 최근 상호 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MOU는 정보교류 및 업무증진에 긴밀히 협력해 양 기관의 공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에 따라 향후 양 기관은 ▲협약기관 공동발전과 우호 증진에 관한 사항 ▲숭실사이버대 교직원 및 졸업생 대상의 스마트융합대학원 모집홍보에 대한 협조 사항 ▲숭실사이버대 교직원 및 졸업생 대상의 스마트융합대학원 등록금 감면 혜택 사항 ▲숭실사이버대 외국인 졸업생 대상의 스마트융합대학원 등록금 감면 혜택 사항 등에 협력할 예정이다.

/이현진 기자